

2021학년도 수능 D-30 학습전략

1. 국어 영역 학습전략
 2. 수학 영역(가형, 나형) 학습전략
 3. 영어 영역 학습전략
 4. 한국사 영역 학습전략
 5. 사회 탐구 영역 학습전략
 6. 과학 탐구 영역 학습전략
-

종로학원 · 종로학평



2021학년도 수능 D-30 학습전략_1교시 국어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수능 D-30일!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조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30일은 생각보다 그리 짧은 시간만은 아니다. 각 영역별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 계획을 가지고 차분히 접근한다면 30일은 공부를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국어 학습전략을 영역별로 정리해 보자.

- 1. 화법과 작문** – 지문과 문제의 유형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다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화법과 작문은 문제의 유형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영역에 대한 공부가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도 문제 풀이 과정에서 유형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나이도가 낮은 이 부분에서 자꾸 틀리는 학생이라면 **오답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부분을 자꾸 놓치고 오독하는가를 알아야 다음에 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문법** – 개념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풀이에 집중할 때이다. 개념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저절로 풀리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문법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자.**
- 3. 독서** – 역시 다양한 종류의 지문에 대한 문제 풀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문을 읽으며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문의 전개 방향은 곧 문제의 출제요소이므로 **지문에서 출제요소를 찾아 읽는 습관을 들이자.** EBS 연계가 되어도 새로운 지문으로 내용을 바꾸어 출제하므로 EBS 연계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지문에 대한 연습이 더 중요하다.
- 4. 문학** – 고전문학은 EBS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대 문학은 새로운 작품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EBS 연계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현대시는 낯선 작품과 함께 출제되며, 현대 소설의 경우 의외로 EBS 외 출제가 많았다. 따라서 EBS 연계 지문만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작품에 대한 문제 풀이 연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꾸준히 푸는 것이다. EBS 파이널 모의고사나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출 문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모의고사 형태의 기출 문제집이나 최근 3개년 정도의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집 등도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다. 이런 모의고사 문제집에는 새로운 지문들과 EBS 연계 지문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능을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마무리를 충실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2021학년도 수능 D-30 학습전략_2교시 수학 가형

1. 킬러 출제 패턴의 변화

이전 수능에서는 27+3의 형태로 킬러 3문항을 제외하면 오답률이 40% 이하로 나오도록 시험이 출제되어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만 맞춰서 등급을 확보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었지만 지난 2020학년도 수능이나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보면 21, 29, 30번 문항 이외에서도 오답률이 40% 이상인 문항이 대폭 늘어 킬러와 준킬러의 격차가 좁혀지고 고난이도 출제 범위도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단원별로 밸런스를 유지하며 누락되는 파트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좋은 문제는 아니다.

D-30일 시기에 N수생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 중의 하나가 바로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이해와 오답 정리에 대한 부분이다. 킬러 문항이든 준킬러 문항이든 오답 정리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면 결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의 킬러 출제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1~2문항의 킬러보다는 전범위에 걸친 준킬러를 공략하는 것이 점수 또는 등급의 확보에 훨씬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항은 전체 수학 학습에서 30% 이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며 오답 정리의 경우 틀린 문제라고 서너 번씩 반복해서 보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많은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단원별 세부적인 개념의 이해와 심화에 더 효율적이다.**

3. 결국은 시험은 평가원이 출제한다.

미적분의 경우 최근 평가원의 출제 경향은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 이외에는 출제되는 개념이나 주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에 **모의평가 기출 문항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토대로 사설기관의 변형 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학 I의 경우(미적분 교과의 '수열의 극한'도 동일) 기존에 이과에 출제되지 않았던 파트가 대거 출제되기에 N수생 입장에서는 새로이 출제되는 파트에 특별하게 더 신경써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기존 문과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항들과 올해 실시한 모의평가 문과 문항을 모두 학습하고 EBS 연계 교재에서 문항들이 바라보는 개념과 문항의 시각 또한 연계 출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의 경우 학습할 내용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확률 단원을 위해 모두 필요한 부분이기에 예전 교과 과정처럼 순열과 조합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며 다른 과목보다도 가장 최근 모의평가의 경향에 맞추어(최근 3개년) 여러 가지 조건을 갖는 상황의 처리에 대한 문항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2021학년도 수능 D-30 학습전략_2교시 수학 나형

1. 복습 위주로 공부하자.

여태껏 풀었던 문제집을 생각해 보라. 수능특강, 수능완성, 기출 문제집, 그 외 기타 교재 등이 생각날 것이다. 이런 문제집들을 꼼꼼하게 다시 푸는 작업을 시작하자. 그전에 풀 때, **틀렸거나, 애매하게 풀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 위주로 다시 백지에 풀어보자**. 분명히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 새로 깨닫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다.

2. 과목별 균형감 있는 학습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다른 친구들은 마무리 문제집이나, 봉투모의고사를 풀고 있다고 절대로 비교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된다.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의 형태로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수능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매년 새로운 유형, 새로운 문제 난이도, 새로운 배치를 통해 수험생들을 당황케 했다. 그렇다면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찾아 다녀야 할까? 아니면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을 재차 다지고 익히는 작업을 해야 할까? 이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수험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선택지는 단 하나다. 바로 **익히고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지고 익힐 것인가?

우선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문제를 골고루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15문제를 푼다고 하면 5문제씩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풀어야 한다.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는 각 단원에서 1문제씩만 풀고, 나머지 4문제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수학 I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를 이용한 도형, 여러 가지 수열에서 출제된 문제를, **수학II**에서는 함수의 극한, 미분법 그래프, 적분법 넓이 계산, 정적분과 함수에서 출제된 문제를 눈여겨 풀어야 한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순열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 확률의 덧셈정리, 여사건, 조건부확률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정규분포와 관련된 문제들도 확인해야 한다.

물론 하루에 매일 이 모든 단원의 문제를 한 문제씩 다 풀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수학 I 몇 문제, 확률과 통계 몇 문제, 수학II 몇 문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매일 같이 다시 푸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3. 이삭줍기 하듯 수능 마무리 공부를 하자.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서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모의고사 위주의 공부는 금물이다. 복습 작업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는 것은 좋지만, 모의고사만 풀어나가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빠뜨리거나 미처 베어내지 못한 작은 이삭들을 거둬들이는 이삭줍기 작업을 하듯이 공부하며 몰랐던 부분을 메꿔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마음 편한 수능 대비법일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 D-30 학습전략_3교시 영어

1. 90점대 학생

- ① 빈칸&순서&문장 넣기 유형의 완성 : 평소에 점수대가 90점대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상기 문제 유형은 틀릴 가능성성이 존재하므로 항상 일정량을 정해놓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근거를 찾아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 ② 연계 교재 이외의 어휘 학습 : 평상시에 90점대를 맞는 학생들이 평상시의 성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제시문의 어휘 난이도 상승이다. 연계 교재의 단어 학습은 의무이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적극 활용하여 어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요구된다.
- ③ 실전 감각 익히기 : 흔히 말하는 문제 푸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일정 횟수를 정해서 실전처럼 시간의 압박을 가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시중에 출판된 사설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2. 80점대 학생

- ① 어법&어휘 유형 점검 : 1등급으로의 진입을 원하는 학생이 위 두 가지 유형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절대평가 체제에서 안정적인 2등급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선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출제 가능한 유형을 압축하여 학습하고 그 후에 실전처럼 어법&어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빈칸&순서&문장 넣기 유형의 학습 : 80점대 학생들도 1등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빈칸과 순서 유형을 극복해야 한다. 3점짜리 문제가 아닌 2점짜리 문제들을 우선 풀어서 자신감을 확보하고 고난도 빈칸·순서 유형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연계 교재 어휘 학습 : 학생들이 평상시의 성적을 수능 시험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제시문의 어휘 난이도 상승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학습하고 그 이후에 자신만의 단어 교재를 하나 정해서 수능 시험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3등급 이하의 학생

- ① 안정적 등급의 확보 : 수시에서 요구되는 2등급으로 확실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능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 제시하는 유형을 제외한 주제/제목/요지/주장/일치/요약문 유형에서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수시로 상기 문제 유형을 연습해서 수능에서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는 유형이 되어야 한다.
- ② 수능 연계 교재 학습 : +1 등급 상향이라는 목표에 흔들리지 않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학습의 도구로 삼고 있는 교재가 수능 성적의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능 연계 교재를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교재로 여겨 영어 공부의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구문 연습 :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몇 가지 단어를 바탕으로 추측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 안정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2등급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올바르게 읽고 답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능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까다로운 구문을 정리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은 학생에게 필수이자 의무가 된다.
- ④ 실전 듣기 감각 익히기 : 듣기 문항은 상대적으로 독해 문항보다 점수를 얻기 쉬운 유형이다.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정 분량의 듣기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시험일까지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어휘, 표현들은 따로 정리해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 D-30 학습전략_4교시 한국사

한국사는 수능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후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 또한 주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등급이 문과인 경우 3등급 이상, 이과인 경우 4등급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의 난이도가 전년 6월, 9월 모의평가 한국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출제되었던 만큼, 올해 수능 한국사의 난이도가 올해 모의 평가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수험생의 예상보다 점수가 낮아질 수 있으니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학습전략으로는 우선 각 시대별로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제도와 기관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근대사 문제의 경우 시대를 구분하는 것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삼국 시대의 사건인지, 아니면 고려 혹은 조선 시대의 사건인지만 구분해도 정답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현대사의 경우는 전근대사에 비해 시간 대비 사건 및 단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끊어서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경우 1910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정답으로 준 후, 1920년대 혹은 1940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오답 선지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시기 속에서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대별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정리하여 충분히 암기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점검 과정으로 최근 4년간 한국사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시대 혹은 어떤 문제 유형에 취약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틀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충한다면 자신이 목표하는 한국사 점수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 D-30 학습전략_4교시 사회 탐구

사회탐구는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난이도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시국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회탐구는 상대 평가인 관계로 총 20문제 중 1, 2문제만 틀려도 1, 2등급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난도 퀄리 문제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2015 개정 교육 내용 중 일부 문제가 고난도로 나온 것으로 보아, 올 수능에서도 2015 개정 교육 내용에서 일부 문제가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 개념 및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그래프, 표 등의 자료를 분석해야 풀 수 있는 유형이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개념의 단순 이해보다 정확한 개념을 파악해야 하며, 여러 개의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는 최근 6월, 9월 모의평가가 평이하게 출제된 편인만큼,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난도로 자주 나오는 주제나 퀄리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수능 전까지 기본 개념 및 본인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한 권의 노트에 주제별로(단원 순서대로) 정리하고 학습해야 한다.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동양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3~4문제 출제된 것으로 보아, 수능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동양 사상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또한 일부 2015 개정 교육에서 추가된 내용 중 2014학년도~2016학년도 기출에 나왔던 주제가 있으므로, 2014학년도부터의 6월, 9월 모의평가 및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생활과 윤리 일부 문제는 수험생이 제시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어진 제시문 또는 선택지를 잘 독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 만큼,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퀄리 문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기출 문제나 EBS 연계 교재를 활용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선택지 내용과 제시된 자료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은 주요 동서양 사상에 대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와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두어야 한다. 평소에 비해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가 평이하게 출제된 관계로, 올해 수능은 전년 수능 수준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6월,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 수능에서는 고난도로 자주 출제되던 성리학과 양명학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 이황, 이이, 정약용의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중국 유교, 한국 유교 사상에 대한 문제가 고난도로 자주 출제되었는데, 올해 모의평가에서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

었다. 오히려 그동안 무난하게 학습하던 사회사상 단원이 의외의 복병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사회사상 단원에서 대폭 개정 혹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갈통의 평화론, 묵자의 평화론, 자유주의(벌린), 공화주의(키케로, 페팃, 마키아벨리, 비롤리)의 내용과 평화와 세계 시민 윤리 단원(묵자, 에라스뮈스, 생피에르, 에피아, 누스바움)은 올해 출제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 추가된 단원은 기출 문제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교과서와 올해 기출 문제 및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여 내용부터 관련 문제까지 꼼꼼히 풀고 정리해 두어야 한다.

▶ 한국지리

한국지는 대부분 자료 분석형 문제가 대부분이다.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기본 개념들이 다양한 소재 및 자료들과 함께 응용되어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므로 EBS 수능완성과 수능특강에 제시된 그림, 지도, 그래프나 도표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교과 내용들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는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들 보다는 올해 모의평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거나, 이미 기출 된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풀어보면서 점수보다는 시간 안배나 문제 풀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어려웠거나 틀린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 또는 EBS 문제를 반복하여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도 파악하고, 부족한 개념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한다.

개념 정리집을 따로 만들며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풀어본 문제들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의 문제를 따로 정리하여 오답노트를 만들고 문제 주변에 주의할 점이나 나만의 마무리 정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둘 다 출제된 주제들을 나열해 본다. 대부분 문항들이 이전 기출 문제에 출제된 지문들과 유형이므로 이에 대한 개념정리와 관련 기출 문항을 풀어보며 주제별 유형 정리를 충실히 해보길 권한다.

★지리 정보와 통계 지도, 해안지형의 형성원인과 특징, 화산지형(제주도, 철원 용암대지), 서울시의 내부 구조, 남북한의 식량작물 비교와 주요 식량작물의 도별 재배 면적 비율, 하천의 상류와 하천의 구간 비교와 하천의 이용(도시화 이후)과 변화, 주요 자연 재해의 특징, 지역별 강수량과 기온 분포

▶ 세계지리

세계지를 늦게 시작한 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기출 문제를 먼저 완벽하게 정리해두어야 한다. 단, 에너지 자원과 식량 자원 단원은 문제에 제시된 통계 년도에 따라 순위가 너무 다르고, 지역 구분 방식(예 : 아시아를 아시아-태평양과 서남아시아로 구분한다.)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으니 두 단원은 올해 기출 문제와 EBS 연계 교재로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킬러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킬러 문제는 올해 시행된 6월, 9월 모의평가와 EBS 연계 교재의 자료, 지문, 지도, 사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와 형태적 유사성이 있는 EBS 연계 교재뿐 아니라 기출 문제의 자료와 지문에 대해 정리하고 킬러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 기출 문제에서 킬러 문제로 <위도와 경도-수리적 위치>가 출제되었다. <판의 경계> 단원이라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아이슬란드의 수도를 백지도에 표시하면서 연습하고, <갈등과 공존> 단원이라면 특히, 새로운 2015 개정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벨기에, 싱가포르, 에스파냐(카탈루나), 이탈리아(파다니아), 미얀마의 위치를 지도가 아닌 수리적 위치로 연습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지리는 2015 개정 교육에서 새로 추가된 단원이 매우 많다. 수험생들에게 새로 추가된 단원은 기출 문제가 거의 없어 방향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올해의 기출 문제와 EBS 연계 교재에서 새로운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습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동아시아사

시대별, 국가별로 출제되는 세계사와 달리 동아시아사는 주제별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성립이라는 주제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북방에서 최초로 등장한 국가나 군주를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나온다. 유교와 불교라는 주제에서는 유교에서 율령제 또는 성리학에 관한 문제가 1문항, 불교에서 1문항이 항상 출제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학생들은 시험에서 늘 나오는 주제에 대해 익숙해져야 한다. 동아시아사는 2015 개정 교육이 도입되면서 내용과 목차가 상당히 바뀌었다. 다행히 추가된 부분은 거의 없고 복잡한 내용들이 상당히 간략해지면서 난이도가 크게 하락하였다. 작년 수능에서 동아시아사를 응시한 학생들은 올해 달라진 내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간략해졌지만 부분적으로 새로 등장한 부분도 있다. 근현대의 문화 쪽에서의 일부 사건의 연도, 현대사의 '중일 평화 우호 조약' 같은 내용이 새로 등장한 부분이다. 올해 새로 추가된 부분은 특별히 강조해서 기억해야 한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출제되었다.

앞으로의 학습 대책으로 먼저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항상 출제되는 주제에 대해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확인하여 자신이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만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만점을 받기 위해서 연도를 정리하되 특히 EBS 수능특강에 나온 연도는 반드시 암기한다. 본문뿐 아니라 지도나 참고 자료의 내용도 정리하여 연도를 암기해야 한다. 만점을 가르는 마지막 한 문제는 근현대 부분의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세계사

세계사는 항상 일정한 출제 경향을 보인다. 세계사는 다양한 지역사와 국가사로 구성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만일 세계사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 약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사 문제는 대체적으로 중국사에서 시대별로 5문제, 일본사 1문제, 인도사 1문제, 서아시아와 이슬람에서 1~2문제, 서양 고대사 1문제, 서양 중세사 1~2문제, 이외에 근현대사 문제가 출제된다. 수험생은 무턱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세계사의 출제 특징을 잘 파악하여 지역별 우선 순위를 정한 뒤 공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보이는 새로운 경향으로 난이도 조절을 위해 학생들이 늘 접하는 자료가 아닌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 수능에서 낯선 자료가 나와도 학생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학습 대책으로 아직 2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세계사 문제의 특징을 염두에 두며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사는 선택지에서 각 시대가 섞여 나오는 특징이 있으며, 일본사는 최근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파악해서 학습해야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상위권 학생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 만점을 목표로 해야 한다. 최근 기출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제 중 구체적인 시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능에서도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어도 EBS 수능특강에 나오는 연도는 모두 암기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서양 고대사 부분은 세기 정도는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 경제

경제는 최근 모든 문제가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단순한 개념의 이해만을 요구하는 문제는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문제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개념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경제 문제는 특히 문제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되는 기출 문제의 유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분석력을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 분석에서 도출되는 결론 등은 암기해 두는 편이 좋다. 가령, 3가지 이상의 선택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 선택만이 순편익이 양수이며, 나머지 선택의 순편익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은 계산하지 않고 접근하여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를 많이 학습하고 있을수록 문제를 푸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수능이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기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 복잡한 문제는 지금 풀 수 있으면 당일에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주요 개념을 활용하는 간단한 문제 등을 통해 개념을 정리하고 자신감을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정치와 법

지금쯤 대부분의 학생이 주요 개념 등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한 번에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암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나 개념 O/X를 통해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많은 내용을 짧은 순간에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법의 이념,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 법치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정부 형태, 지방 자치 제도, 통치 구조, 정치의 과정, 정치 참여 주체, 민법의 기본 원리, 노동법,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국제법, 국제 연합의 구성과 특징 등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거 결과의 분석, 민법의 상황 분석 문제, 범죄의 성립 요건, 형사 소송의 절차 등과 같은 비교적 내용이 복잡하고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자료를 꾸준히 점검해서 빠짐없이 이해해야 한다.

문제를 풀면서 혼동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수험생 스스로 정리를 해야만, 내용이 산발적으로 흩어지거나 추가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보다는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쉬운 문제 중심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 사회 . 문화

수능에서 사회탐구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문화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수험생들은 보통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탐구 과목의 공부량이 적다. 하지만 공부 시간이 적게 드는 것에 비해 생각보다 각 대학의 반영 비율은 높다. 특히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기 위한 전략적 과목이 사회탐구이며, 정시에서도 노력 대비 반영률이 높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전략적 선택 과목으로 생각하고, 수능 시험일 전까지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올해 본 모의고사를 분석하여 수능 문제를 예측해야 한다. 평가원과 교육청 문제를 분석하여 수능 문제를 예측해야 고난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매년 당해 연도 평가원과 교육청 문제에서 10문항

정도가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특히 수능에서 새로운 유형 문제는 대부분 그 해 본 평가원이나 교육청에 있는 문제를 조금 응용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비한 사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경향 문제에 익숙해져야 한다. 카드 게임에서 주어지는 규칙 인식 문제, 주어진 점수(정답 개수)에 따른 선지 판단형 문제, 구분할 수 '있다'와 '없다'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을 바탕으로 A~C 구분 문제 등 개념 자체보다 문제 유형으로 인해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BS연계 교재와 기출 및 각종 모의고사를 통해 신경향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져야 한다. 특히 신경향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으므로 풀이 요령을 익혀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퀄리 선지 파악 연습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의 1등급은 4%이므로 순간의 방심이 한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파트에서 퀄리 선지가 나오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념 설명에서 어떤 수식이나 접미사를 선택했는지, 서술어의 선택 등이 올바른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 D-30 학습전략_4교시 과학 탐구

수능을 30일 앞두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습의 리듬이 깨지고 심리적으로도 다운이 되는 어려운 시기였다. 어렵고 힘든 2020년 한 해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회라는 긍정의 마인드로 남은 기간을 잘 정리하면 수능에서 의외로 최고의 점수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은 기간 학습 전략으로 평소에 준비해온 내용 정리 학습 노트, 오답 노트, 기출 문제, EBS 문제 풀이 등을 통해 준비해 두길 바란다.

▶ 물리학 I 수능 D-30 학습 전략

1. 2020년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기타 실전모의고사 중 자신이 자주 틀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 보기의 내용의 연결성(이 보기와 알면 다음의 보기도 알 수 있다)을 확인하지 못했던 문제를 찾아내어 EBS 수능특강의 본문에서 내용을 정리한다.
2. 시중에 나온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오답 정리를 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되, 너무 새로운 문제만 찾는다거나 어려운 문제 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수준에 맞는 것을 찾아서 풀어야 한다.
3. 추가로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교과 담임을 만나 문제를 받아서 풀어보고 애매한 문제의 경우 확실히 이해될 때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물리학 I의 경우 작년과 달리 돌림힘이나 유체, 손실 전력, 교류 회로가 빠지고 단원도 3개의 단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 18문항과 킬러 문항 2개로 압축되는 상황이다. 주의 깊게 정리할 문제로 운동량 보존, 자기장 문제, 전기력,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열기관(순환 과정에서 열과 일)을 들 수 있는데 5개의 주제는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중요한 법칙이나 개념을 정리해두어야 한다.

▶ 화학 I 수능 D-30 학습 전략

1. 전 범위에 걸친 내용 정리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이다.

수능 시험을 가까이 앞두고 급한 마음에 서둘러 대충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을 버려야한다. 이제야 말로 전 범위에 걸친 내용 정리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이다. 평소에 준비해온 내용 정리 학습 노트, 오답 문제 노트 등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기존에 준비해둔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 만의 것을 만들면서 수능 시험을 대비해야 한다. 탐구 과목은 짧은 기간에 집중 학습을 통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확신을 가져야하고 그 믿음을 밀고 나가야 한다.

2. 실전과 같은 집중력으로 정성을 들여서 풀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보완하자.

실전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 하나하나를 시험장에서 와 같은 집중력으로 정성을 들여서 풀고 부족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어야한다. 30분이라는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통해서 킬러 문항에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기본 개념 문항은 실수 없이 원샷 원킬하는 기분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3. 양적 계산이 요구되는 문항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산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양적 계산은 어려운 킬러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쉬운 문항에도 간단한 계산이 많이 요구

되는 탐구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산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교육 과정이 바뀌는 첫해라서 예년보다 낯선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쉽게 출제하려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모의평가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수능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탐구 1등급은 무조건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남은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철저히 준비하자.

▶ 생명과학 I 수능 D-30 학습 전략

1. 나이도는 낮지만 자주 출제되지 않던 개념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킬러 문제 나이도가 낮아진 대신 비킬러 단원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졌다. 나이도는 낮지만 자주 출제되지 않던 개념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생태계 단원은 공부량이 유난히 적은 단원이므로 틀리기 쉽다. 빈틈없이 대비만 하면 3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다. 방형구 풀이 방법이 바뀐 교육과정에서 새로워졌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새롭게 교육과정에 추가된 내용의 출제 가능성성이 높다.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수능이다. 새롭게 교육과정에 추가된 내용의 출제 가능성성이 높다. 9월 모의평가에는 고혈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른 대사 질환과 유레이스 관련 문제의 출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2가지 당뇨병을 구분하는 문제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물질대사, 방어 작용, 항상성 문제는 새로운 유형이 없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았으니 기출 문제나 EBS 문제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지만,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고 출제 빈도가 낮았던 내용이 갑자기 출제될 수 있으니 모의고사와 개념서로 빈틈없이 공부해야 한다. 특히 6월, 9월 연속으로 병원체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다. 꼭 대비해야 한다.

3.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한다.

염색체 모양으로 성별과 종을 구분하는 문제 유형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나이도는 낮지만 정답률도 낮은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도 연관은 여전히 출제 범위이다. 6월 모의평가 기출 문제인 다인자 유전의 연관뿐 아니라 단일 인자 연관 가계도 문제도 꼭 대비해야 한다. 가계도 문제 종 서로 다른 개체의 대립유전자 DNA 상대량의 합으로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를 구분하는 6월 모의평가 17번 유형이 최근 몇 년간 자주 출제되는 추세이다. 사설 모의고사나 EBS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으니 꼭 익혀두어야 한다. 가계도와 비분리, DNA 상대량 킬러 문제들은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기출 문제와 EBS에서 제시된 문제 유형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나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적당한 나이도의 킬러문제로 감을 잊지 않도록 연습해야 한다.

▶ 지구과학 I 수능 D-30 학습 전략

1. I 단원 고체 지구에서는 고지자기와 대륙 이동 부분이 킬러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자기 해석 문항을 기출 문제와 EBS 문항을 통해 충분히 숙달해야 한다. 또한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의 특징과 마그마의 생성 과정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다. 플룸 구조론은 이번 신설 개념 부분이므로 지진파의 속도에 따른 플룸의 구조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퇴적 구조와 지질 구조는 기본적 용어와 암기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히 학습한다.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한 지층 대비를 통해 상대 연대를 비교하고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 방법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층 대비와 방사성 동위 원소 분석으로 알게 된 자료를 통해 각 지질 시대별 특징이 함께 출제될 수 있으니 지질 시대의 특징을 잘 암기해 두어야 한다.

2. Ⅲ단원 대기와 해양에서는 자료 해석 문항이 대부분 출제되고 있으므로 대기 파트에서는 정체성 고기압의 종류와 특징, 온대 저기압, 태풍의 개념을 숙지한 후 EBS 연계 교재의 그래프 도표 등의 자료를 꼼꼼히 학습한다. 악기상의 용어 정리도 꼭 해두자. 해양 단원에서는 표층 염분의 특징이 다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표층 해류의 방향도 꼭 숙지해두도록 한다. 수온-염분도를 이용한 수괴 분석 및 심층 해류의 종류와 특징은 매우 중요하다. 엘니뇨, 라니냐를 워커 순환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고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 요인은 각 변화의 요인과 특징을 정리해두고 기출 문제, EBS 문항을 통해 자료 분석을 연습해두자.
3. Ⅲ단원 우주에서는 수능에서 키워 문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정량 계산이 들어가는 허블 법칙과 흡수 선 스펙트럼 분석이다. 시선 속도의 공식을 통해 적색 편이량, 후퇴 속도 등을 구해 거리 등을 묻는 문항이 고난도로 출제 될 수 있으니 공식과 풀이를 꼭 점검하자. 별의 특성과 진화 부분은 H-R도를 바탕으로 잘 정리해두자. 외계 행성 탐사의 경우 각 탐사 방법의 특징과 올 모의평가 문항 유형을 바탕으로 EBS 문항과 함께 점검하고 우주론의 경우는 아직은 고난도 유형이 없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니 빅뱅 우주론을 바탕으로 급팽창 우주론, 가속 팽창 우주론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우주의 구성 성분을 통한 우주의 미래 모형을 분석하는 자료 문항을 꼭 점검하자.

▶ 물리학Ⅱ 수능 D-30일 대비 공략법

1. I 단원 역학적 상호작용의 경우 2개 이상의 물리적 현상을 연립하여 계산 하는 문항이 출제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문제 풀이 방법을 가져야 한다. 또한 돌림 힘의 경우에서도 대칭성을 이용하여 식을 최소화 시키는 연습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Ⅲ단원 전자기장에서는 전기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와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 회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이 진행되다가 물리학Ⅱ에서 등장하다보니, 학생들로서는 이해도가 상당이 떨어져 있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자기 유도는 기존의 기출 문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잘 정리해야 할 것이다.
3. Ⅲ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은 현대 물리학 파트로서 생소함을 떨쳐내야 할 것이다. 이 단원은 물리학Ⅱ 영역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단원으로 실수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단원은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거나, 개념을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학습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익히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남은 기간 학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화학Ⅱ 수능 D-30일 대비 공략법

1. I 단원에서 쉽게 출제되는 분야는 기체의 일반적 성질, 분자 간 인력, 액체와 고체, 묽은 용액의 성질 등이다. 키워 문항은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를 복잡한 실험 과정으로 제시하고 부분 압력 구하기, 용액의 희석이나 혼합 과정에서 농도 환산,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과 관련된 자료 해석에서 주로 출제된다. 기체나 용액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을 철저히 하고, 고난이도로 출제된 계산 과정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2. Ⅲ단원에서 쉽게 출제되는 분야는 반응열의 이해와 간단한 반응열 계산, 화학 평형의 정의와 간단한 평형 상수 계산, 상평형 그림, 산 염기의 개념 이해 등이다. 키워 문항은 결합 에너지와 헤스 법칙을 이용한 반응열의 계산, 도표를 제시한 평형 이동 해석, 중화 반응과 가수분해를 응용한 용액의 pH 계산 등에서 많이 출제된다. 화학 평형 단원은 화학Ⅱ의 교과과정 중 내용이 가장 많은 단원이

므로 개념 원리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상평형은 물과 이산화 탄소의 상평형 곡선을 비교하여 공부하고, 산 염기 평형은 이온화 상수와 중화 적정 실험, 염의 가수분해를 평형 이동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을 공부해 두자.

3. III단원에서 쉽게 출제되는 분야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촉매의 작용 등이다. 킬러 문항은 제시된 그래프나 자료를 이용하여 반응 차수 구하기나 반응 속도 해석에서 주로 출제된다. 반감기가 일정한 1차 반응을 해석하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속도 상수와 반감기가 반비례 관계인 것을 알아두자.
4. IV단원에서 쉽게 출제되는 분야는 화학 전지의 원리, 전기 분해, 수소 연료 전지 이해 등이다. 킬러 문항은 수용액의 전기 분해에서 생성물의 양(mol) 구하기와 수용액의 액성 찾기에서 출제된다.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단원이므로 기본 개념과 장치에 대해 꼼꼼하게 공부하자.

▶ 생명과학II 수능 D-30일 대비 공략법

1. 올해의 교과과정 개편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생명과학II 시험에서는 교과과정 개편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내용에서 빠지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으며, 일부는 명칭이 바뀐 것도 있다. 기존 교과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확인해보면, 세포 연구 방법에서 광학 현미경의 접안,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세포 크기 측정, 아세트산 발효, 생물의 분류에서 원생생물, 균류, 동물 분류에서 선형동물과 윤형동물, 종 분화에서 동소적 종 분화, 생명 공학 기술에서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 DNA 염기 서열 분석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을 확인해보면, 생명과학의 역사,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생명체 구성 기본 물질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명칭이 변경된 것을 살펴보면, 광합성에서 순환적 광인산화는 순환적 전자 흐름으로,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으로, TCA 회로에서 석신산과 말산은 4탄소 화합물로, 이소적 종 분화는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 분화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새로 추가된 내용을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과학의 역사',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생명체 구성 기본 물질'은 암기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를 한 후, 수능 시험 직전에 마지막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3. 변별력과 난이도가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생명과학II에서 변별력이 있거나 난이도가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의 계산 문제, 유전자 형질 발현과 조절(오르니틴 회로를 이용한 돌연변이, 전사 인자의 종류와 전사 인자 결합 부위의 결합 여부, 대장균의 젖당 오페론을 활용한 돌연변이, 전사와 번역 과정에서 염기의 결실, 삽입, 치환을 이용한 단백질 형성 과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수능 수준으로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수능 수준으로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수준의 문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사설학원 모의고사나 기타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등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지구과학Ⅱ 수능 D-30일 대비 공략법

1. EBS 연계 교재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첫해이므로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는 모두 2009 교육과정 기반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단원별로 꽤 많은 내용들이 새로 추가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교재가 바로 EBS 연계 교재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최소 3회독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히 모든 보기를 검토하며 과목별 약점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나 지구과학Ⅱ는 새로이 천체의 좌표계와 행성의 운동이 추가 되었고 이 부분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연계 교재의 모든 문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2. 올해 모의평가는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EBS 연계 교재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기출 문제의 직접 연계도가 낮으므로 올해 수능을 가이드해주는 유일한 실제 기출이 6월과 9월 모의평가이므로 이 문제들도 모든 문항을 최소 3회독을 하여야 한다.

3. 올해는 천체의 좌표계와 행성의 운동이 핵심이 된다.

- **I단원** : 고체 지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낮으나 근거리 주시곡선 해석 문항과 지질도를 해석 하는 문항에서 고난도 문항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출 문제와 EBS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숙지해 두어야 한다.
- **II단원** : 대기와 해양에서는 최근 관계식을 이용한 비례 정량 문항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원현상에서 단열 감률을 이용한 기온, 이슬점 계산, 지균풍의 풍속의 관계식, 지형류의 유속 등의 관계식을 잘 점검하여 계산하는 연습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하겠다.
- **III단원** : 우주에서는 천체의 좌표계가 신설된 단원으로 킬러 유형 문항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천구를 통해 천체의 위치나 운동을 파악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하고 행성의 운동의 경우 내행성과 외행성의 시운동을 좌표로 해석 가능해야 하겠다. 특히 회합 주기 문항의 경우 고난도 사고력의 문항이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회합 주기의 정의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전 주기나 공전 궤도 반지름 등을 구하거나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부터 출제율이 높았던 우리 은하의 구조 부분은 21cm 전파의 해석을 통해 태양계 주위의 케플러 회전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기출 문제나 EBS 문항 위주의 자료를 확실하게 분석해 두어야 하겠다.

현재 시중에 지구과학Ⅱ 교재가 보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학생들은 무리하게 새로운 문제를 찾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연계 교재와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서 수능을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모두 충분히 수능을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신을 믿고 끝까지 준비하기를 바란다.